

물가 완화와 반도체 저가매수세 유입, 3대지수 상승



미국시황/ESG 김윤정 _yunjeong.kim@ls-sec.co.kr
RA 성현영 _hyseong@ls-sec.co.kr

반도체 반등, 금융주 실적시즌 시작

- 미 증시는 DOW +0.02%, S&P500 +0.38%, NASDAQ +0.90% 상승. 기술주 강세, 헬스케어, 필수소비재 약세
-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+2.5% 최근 약세에 따른 저가매수세 유입. 램리서치(+4.9%), 마이크론(+4.9%),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(+3.5%) 등. 반면, IBM은 S/W와 인프라 사업부문 수요 부진으로 인한 2Q26 실적 부진을 경고하며 다우 상승폭 제한, 서비스 나우(-5.8%), 액센추어(-2.9%) 등 S/W 업종 약세
- 대형 금융주를 필두로 2Q26 실적시즌 시작. 골드만삭스(+9.2%), JP모건(+2.5%) 등은 예상 상회하는 호실적에 강세 반면, 씨티그룹(-5.3%), 웰스파고(-2.7%) 등은 약세 보이며 엇갈림 양상

국제유가 중동 정세 경계감에 강세, 다만 상승폭은 제한

- 국제유가 상승 WTI \$79.3(+1.5%), Brent \$84.7(+1.7%). 미국의 대이란 공습 지속되며 유가 강세 기조 유지. 다만, 트럼프 대통령이 전일 발표한 호르무즈 해협 안전운항 통행료 20% 부과안에 대해서는 철회함에 따라 상승폭 제한
- 다만, 국제금리는 CPI 영향에 2년물 중심 하락 10Y 4.589%(-2.1bp) 2Y 4.196%(-6.8bp)

예상치 하회한 CPI, 국제유가 흐름 경계는 지속

- 6월 CPI YoY +3.5%, MoM -0.4% 전월·컨센 하회, MoM 기준 6년만의 최대 하락폭. 에너지 -5.7%, 휘발유 -9.7% 등 마-이란 MOU 체결 후 국제유가 안정이 물가 압력 약화에 주효. 6월 근원 CPI도 YoY +2.6%, MoM 포함 전월·컨센 하회. 중고차·트럭(-0.2%), 의류(-0.6%) 하락과 서비스가격 포함 유지가 상승률 둔화에 기여
- CME FedWatch 상 7월 금리 인상 가능성 42%→17%로 크게 위축. 다만 9월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63% 수준으로 최근 중동 긴장 재개에 대한 경계 유지
- 한편 워시 연준의장은 하원 청문회에서 연준의 물가안정 의지를 재확인, 연준 독립성을 고수하겠다는 입장 표명

티커	종목명	수익률 (1D,%)	내용
NVDA	엔비디아	+4.1%	미 당국의 승인 하에 소량의 H200 칩 대중국 수출 개시. 상무부 차관은 출하량이 "매우 미미한 수준"이라고 밝혔으나, 구체적인 칩 수량이나 구매자에 대해서는 언급을 거부.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는 차세대 블랙웰 칩의 중국 유입 방지를 위한 수출 통제 강화 요구가 제기되기도
SKHY	SK하이닉스	+27.3%	바클레이스는 메모리 공급 부족 사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며 SKHY의 목표주가를 \$330로 제시, 저가매수세 유입. 또한 미 ETF 운용사들의 SKHY 레버리지 ETF 잇따른 상장과 옵션거래 본격적으로 개시
IBM	IBM	-25.2%	시장 컨센 하회하는 잠정 2분기 실적발표. 고객들의 AI 관련 지출 전환으로 인한 실적 컨센 미달 경고에 주가 급락. 아르빈드 크리슈나 CEO는 고객들이 가격 인상에 대비해 서버, 스토리지, 메모리 반도체 등 H/W 확보로 CAPEX 지출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면서 S/W 및 인프라 부문이 약세를 보인 것을 실적 부진의 원인으로 지목
GS	골드만삭스	+9.0%	실적발표. 컨센 큰 폭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. 스페이스X의 메가 IPO 주관 등에 IB 수수료 수익이 YoY + 55% 급증, 주식 트레이딩 매출은 YoY+72% 증가하며 전사 호실적 견인
JPM	JP모건	+2.5%	실적발표. 컨센 상회하는 호실적 발표했으나, 비용 가이드선스 상향. 연간 비용 가이드선스를 기존 \$105B→\$107.5B로 상향 조정. IB 수수료 수익은 YoY +30% 증가, 주식 트레이딩 매출은 YoY+86% 급증. 비자 지분 관련 일회성 이익 영향에 2분기 순이익 YoY +41% 증가, 일회성 요인 제외 시 YoY +13%. 한편 제이미 다이먼 CEO는 지정학적 긴장과 전쟁, 끈적한(Sticky) 인플레이션, 막대한 글로벌 재정 적자, 그리고 고평가된 자산 가격 등 리스크 지적